

빛나는 KIA의 선발야구...경기 중반까지 '계산이 서네'

비록 연이틀 아쉽게 경기를 내줬지만 단단한 선발진의 힘만큼은 제대로 보여줬다. 소위 '마운드에서 계산이 서는' KIA 타이거즈다.
주중 3연승을 달렸던 KIA는 지난 5일과 6일 두산 베어스에 연거푸 발목 잡히며 2연패에 빠졌다. 5일 경기, 1-1로 팽팽하던 흐름이 7회말 급격히 무너졌고 6일에도 6회까지 3-1로 앞섰으나 역시 7회말 동점을 허용한 뒤 9회말 역전 끝내기 안타를 맞았다.

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했다.
이런 선발 투수들의 활약 덕분에 KIA는 경기 초중반까지 계산이 서는 야구를 선보이고 있다. 불펜 운영에서 변수가 최소화됐고 구사할 수 있는 작전 등도 다양해졌다.
올 시즌 KIA는 양현종-애런 브룩스-드류 가농-이민우-임기영으로 꾸려진 선발진을 운영 중인데 시즌 초반, 그 결과와 페이스가 상당히 좋다. 양현종 4승, 브룩스 2승, 가농 2승, 이민우 3승, 임기



이민우

이민우·가농 연이틀 선발투수 제몫 해내 올 시즌 5인 선발진 순항...상위권 넘볼만

경기 후반의 뒷심이 부족했고 수비 등에서 아쉬운 장면도 반복됐다. 다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마운드, 특히 선발 투수의 연이틀 호투는 고무적인 요소였다.
5일 경기에서 선발투수 이민우는 6회까지 1실점으로 상대 타선을 틀어막았고 6일에는 드류 가농이 6회까지 1실점으로 제 임무를 소화했다.
이민우는 7회말 다소 흔들리며 최종 6%이닝 5실점, 가농도 7회말 기회를 내주며 6% 3실점(1자책)으로 최종 마무리했으나 야수진의 수비 실책 등 겹친 결과다. 무엇보다 6이닝 동안은 선발투수로

영 2승으로 벌써 13승이나 합작했다.
자타공인 에이스 양현종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물음표던 새 외국인 투수 2명(브룩스-가농)이 기대 이상 기량을 보여줬으며 이민우는 잠재력을 폭발하고 있다. 임기영도 지난해 부진을 씻어내는 중이다.
상대팀들은 KIA와 상대할 때 선발진 공략부터 애를 먹고 있다. 지난 이틀 동안 두산의 경우 이틀 후반 반전으로 뚫어냈으나 주중, KIA에 3연패를 당한 롯데는 3연전 내내 KIA 선발진 공략에 실패하며 경기를 어렵게 끌고 갔다.

'کم백' 김연경, 연봉은 고려대상 아니었다

흥국생명과 연봉 3억5천에 도장...마지막 올림픽 의지 강해

'배구 여제' 김연경(32·흥국생명)이 11년 만에 국내 코트로 돌아왔다.
흥국생명은 6일 김연경과 연봉 3억50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2008-09시즌 V리그를 떠나 일본, 터키, 중국 무대에서 활약했던 김연경은 10여 년 만에 다시 핑크색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게 됐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김연경이 1년 3억 5000만원에 도장을 찍은 부분이다. 흥국생명은 샐러리캡으로 인해 고민했는데, 김연경이 후배들을 위해 대폭 연봉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약은 일사천리에 진행됐다.
여자부의 경우 샐러리캡은 23억원인데 이재영과 이다영 두 자매에게 10억원을 소진한 흥국생명으로서 김연경에게 옵션 포함 최대 6억5000만원을 줄 수 있었다. 다만 이럴 경우 나머지 선수들을 6억5000만원에 계약해야 했기에 김연경은 휴여나 후배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고민했다.
구단은 당연히 최고대우를 약속했지만 김연경이 이를 고사하면서 협상은 쉽게 끝났다.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고심했던 흥국생명도 나머지 선수들과의 연봉 협상에 부담을 덜게 됐다. 김연경의 통 큰

결정 덕분에 선수와 구단 모두 '윈윈'이 된 모양새다.
최근 만났던 김연경은 "외롭다"는 말을 꺼냈다. 한국을 떠나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며 육체적·심리적으로 지쳤다는 의미였다. 그는 "해외에 나간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최근 터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격리됐을 때도 꽤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김연경이 한국 무대에 복귀한 가장 큰 이유도 그 부분이었다. 가족과 주위 가까운 사람들도 김연경이 최고의 무대에서 뛰는 것도 좋지만 의지할 곳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왔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김연경도 자신의 선수생활 마지막을 국내에 돌아와 뛰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켰다.
김연경의 오랜 친구인 김수지(IBK기업은행)는 "연경이가 여러 가지로 힘들어 했다"며 "어렵게 결정을 내렸으니 이제 아프지 않고 잘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더 많은 팬들이 여자배구를 좋아해주실 것 같다"고 궁정적으로 바라봤다.
무엇보다 김연경이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는 내년으로 미뤄진 도쿄 올림픽을 향한 의지가 컸다.

한국에서 될 경우 치료와 관리 부분에서 다른 리그에 비해 수월하다. 또 이다영, 이재영(이상 흥국생명) 등 국내 선수들과 손발을 맞추는 부분도 유리하다. 무엇보다 대표팀 일정으로 해외에 왔다갔다 하면서 발생하는 체력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김연경은 유럽배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 MVP 수상, 터키리그 컵대회 우승 등 국제무대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냈지만 유일하게 올림픽 무대에서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한이 있다.
김연경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지만 유일하게 올림픽 메달이 없다"며 "2012 런던 올림픽에서 MVP를 받았지만 당시 4위를 해서 별도의 시상식이 없었다. 그때도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다"고 미련을 설명한 바 있다.
김연경은 "나뿐만 아니라 (양)효진이나 (김)수지 등 모두가 마지막 올림픽이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다. 쉽지 않았지만 마지막 올림픽 무대에서 꼭 메달을 따고 싶다"고 밝혔다.
11년 만의 국내 무대 복귀를 결정한 김연경은 구단을 통해 "무엇보다 한국 팬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면서 "많은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흥국생명은 내주 초 김연경의 국내 복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11일 재개' PGA 투어에 관심 후끈

세계랭킹 20위 내 16명 출전...임성재도 출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마침내 재개된다. 3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대회에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모두 출전할 예정이다.
미국 ESPN은 7일(한국시간)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찰스 슈와브 챔피언십에 세계랭킹 20위 내 선수 16명이 출전한다"고 보도했다.
PGA 투어는 3월 중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1라운드를 마친 뒤 코로나19 여파로 시즌이 전격 중단됐다. 멈춰있던 투어는 오는 11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폴로 니얼 CC에서 열리는 찰스 슈와브 챔피언십(총상금 750만달러)로 시즌을 재개할 예정이다.
ESPN은 "비록 타이거 우즈(11위·미국)가 출전하지 않지만 세계 1위 로리 매

키틀로이(북아일랜드)를 비롯해 랭킹 5위 이내 선수들이 모두 출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매키틀로이 뿐만 아니라 세계 2위 윤 람(스페인), 3위 브룩스 켈카, 4위 저스틴 토머스, 5위 더스틴 존슨(이상 미국) 등 '톱 5'가 총출동한다.
매체에 따르면 20위 내에서 이번 대회에 나오지 않는 선수는 애덤 스콧(6위·호주), 토미 플릿우드(10위·잉글랜드), 패트릭 캔들레이(7위·미국), 우즈까지 4명이다.
이번 대회에는 148명이 출전하는데, 상위 100위권 내에 있는 선수 중 70명이 출전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페덱스컵 랭킹 1위이자 세계랭킹 23위인 한국의 임성재(CJ대한통운)도 시즌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조코비치, US오픈테니스 출전 난색

"코로나 상황 사실상 불가능"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가 오는 8월 31일 열리는 메이저 대회 US오픈 출전에 난색을 표했다.
앞서 세계 2위인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US오픈 출전을 고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조코비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실상 출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7일(한국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조코비치는 이날 세르비아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뉴욕 맨하탄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숙소와 공항 등에서 1주일째 2-3차례(코로나)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인 규

제가 심해지고 있는데 대회 출전은 어렵다"고 말했다.
조코비치는 "만약 대회에 출전하려면 코치와 피트니스 코치, 물리치료사 등과 함께 해야 한다"면서 이동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대회에 나서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3차례 US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조코비치는 "전화를 통해 전 세계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부분이 US오픈이 열릴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경기에 꼭 출전하겠다고 한 선수는 극히 적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US오픈 챔피언인 나달도 지난 4일 이번 대회 출전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메이저리그 7월4일 개막 물 건너가나

연봉 삭감 관련 노사 이견 여전
美 언론 "올 시즌 무산될 수도"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구상하던 7월4일 시즌 개막 계획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 디 어슬레틱은 7일(한국시간) "7월4일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다. 노사가 (만일) 합의를 한다면 그 때까지 준비를 마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애초에 기대한 7월4일 시즌 개막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시즌 개막이 미뤄진 메이저리그는 최근 7월4일 무관중 개막, 8경기 소화라는 단축시즌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무국이 기존 선수노조와 합의한 내용을 깨고 연봉 추가 삭감을 요구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이미 양 측은 시즌이 재개될 경우 경기수에 비례해 임금을 받기로 합의했다.

사무국과 구단들은 경기가 무관중으로 치러져 손해가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후에는 선수별 차등 임금 삭감이라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선수노조는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거듭 기존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기수를 늘리자는 역제안을 했지만 이번에는 사무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양측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오는 7월로 구상한 시즌 개막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현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